

중국의 국가 신자유주의의 문화적 모순*

앨빈 소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인화 추 홍콩침례대학교

이 글의 목적은 중국의 국가 신자유주의(state neoliberalism)의 문화적 모순(cultural contradiction)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다니엘 벨(Daniel Bell, 1976)이 만든 문화적 모순의 개념을 논의한 뒤, 1978년 이후 후기 사회주의 중국(post-socialist China)에서 나타난 문화적 모순의 생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그다음에는 중국사회의 문화적 모순과 도덕적 위기의 연관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현대 중국사회의 도덕적 위기는 국가 신자유주의의 문화적 모순의 산물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주제어 문화적 모순, 신자유주의, 시장 개혁, 중국, 공산당-국가, 자본축적

비교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로 가는 중국의 도정을 “국가 신자유주의(state neoliberalism)”라고 명명하는데, 이는 현대 세계경제의 다양한 자본주의(varieties of capitalism)와는 다른 것이다. 소와 추(So and Chu, 2015)는 중국에서의 국가 신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본다.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국가 신자유주의는 공산당-국가(the communist party-state)를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신자유주의’를 장려하는 가장 ‘지배적인 행위자(agent)’로 본다. 중국의 국가는 표준적인 발전국가들이 수행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신자유주의를 추진했다. 따라서 점점 많은 상품들이 시장원리로 작동하게 되었고, 노동자들과 천연자원을 무자비한 자본주의

* 이 연구는 홍콩 연구비지원협의회(Research Grants Council of Hong Kong)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GRF project number 242213) 연구보조원 우 윈타오(Wu Yintao) 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번역: 조한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적 착취에 노출시켰으며,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줄어들었고, 비전략 부문에 속하는 다수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했다. 또한 중국은 신자유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자본가가 아닌 공산당-국가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서구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neoliberal capitalism)와는 달랐다. 사실, 1978년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t) 중국에서 정책 변화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시장관계는 국가에 의해 강력히 억압되었고, 재산은 대부분 국가나 공동의 소유였으며, 시장제도는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고, 자본가 계급은 부재했다. 이후 공산당-국가가 시장관계의 등장과 자본가 계급의 탄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관행을 도입하는 데 오랜 기간 도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등장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자본축적이 경제를 추동하는 궁극적 동기로 작용하는) 서구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는 달리, 중국에서 신자유주의 관행들의 부침을 좌우한 것은 주로 공산당-국가의 생존과 리더십의 유지에 대한 최우선적인 관심사였다.

둘째, 자본주의로 가는 중국의 도정은 분권화(decentralization) 정책과 지역 주도(local initiatives)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지방정부들과 향진기업들(Township and Village Enterprises, TVEs)은 지역화된 행정 및 인민공사기업(brigade and commune enterprises)이라는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t) 유산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중국의 자본주의 발전에, 특히 1980년대 초기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행정적·재정적 분권화 정책은 이들 지방정부 행위자들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과 상당한 인센티브(와 압력)를 만들어냈다. 이는 공산당-국가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혁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에 중국의 지역경제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였다.

셋째, 국가 신자유주의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이한 형태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가리킨다. 신흥 자본가 계급은 오랫동안 취약했고, 자신들의 시장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정책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었으며, 종종 자신의 생존을 위해 국가에 의존했다. 중국에서 기업을 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종종 지방정부 관료들과 개인적인 후견-피후견(clientelistic) 관계를 맺어야 한다. 지방정부 관료들과의 연결고리(connection)가 없이는 자본가들은 지방노동국 혹은 지방 세무 부서의 횡포로부터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된다. 또한 자본가는 (은행 대출, 사업 허가, 시장 정보 획득 등의)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료들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샤오(Xiao, 2015)는 “중국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방정부의 허가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마 북한을 제외하고 중국이 사업을 하기 가장 힘든 곳일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연줄이 없이는 시장에서 사업을 하거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특히 더욱 그랬다”고 말한다. 크리스토퍼 맥널리(Christopher McMally)는 중국을 ‘연줄 자본주의(guanxi capitalism)’라고 명명함으로써 지방정부와 기업 간의 밀접한 관계를 포착하고자 했다. 맥널리는 민간 기업들과 지방 공산당-국가의 제도 및 행위자들 간의 이러한 정치적인 연줄(guanxi) 네트워크가 “국가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에서 자유분방한 사적 자본축적과 권위주의적인 통제의 논리를 이어준다”고 설명한다(McNally, 2011: 3).

소와 추(So and Chu, 2015)는 정치경제적 시각을 가지고 국가 신자유주의를 살펴해보면서 공산당-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무엇이 국가 신자유주의의 문화적 특징(cultural configuration)이며, 문화적 모순인가?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문화적 모순은 어떻게 후기 사회주의 중국의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 글의 목적은 중국의 국가 신자유주의의 문화적 모순을 설명하는 데 있다. 먼저 벨(Bell, 1976)이 주장한 문화적 모순(cultural contraction)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1987년 이후 후기 사회주의 중국에서 문화적 모순이 생성된 것에 대해 검토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대중매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의 문화적 모순과 도덕 위기(moral crisis)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대 중국사회의 도덕의 위기가 국가 신자유주의의 문화적 모순의 산물임을 주장할 것이다.

I. 선진산업국에서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에서 벨(Bell, 1976: 80)은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중산층(부르주아) 사회는 두 가지의 원천과 운명을 갖는다. 하나는 청교도, 휘그 자본주의(Whig capitalism)로, 단순한 경제적 활동

보다는 성실, 정직, 그리고 소명으로서의 직업과 같은 특징의 형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종교적인 홉스주의(Hobbesianism), 급진적 개인주의로, 인간을 무한한 욕망을 가진 존재로 보며, 이 욕망은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통치자에 의해 제한받지만, 경제와 문화에서는 완전히 자유롭다.

벨은 이 두 경향이 항상 불안정하게 공존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흐름은 점차 사라졌다. 벨(Bell, 1976)은 미국 자본주의에서 청교도주의(Puritanism)가 지난 200년 동안 금욕주의, 비물질적 가치, 육체적 쾌락, 겸소함(simplicity), 그리고 목적의식이 있는 규율을 강조하는 엄격한 칼뱅파의 운명예정설(Calvinist Predestination)로부터 사치, 과도한 소비, 즉각적인 만족으로 대변되는 쾌락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강조하는 1960년대의 젊은이들의 반문화(the counter culture)로의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 일련의 사회적 실천으로서 청교도주의는 서구 자본주의에서 견잡을 수 없는 개인주의와 돈벌이를 사회 진화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벨(Bell, 1976: 55)은 더 나아가 “전통적인 중산층 가치체계의 이러한 붕괴는 사실상 중산층의 경제체제, 더 엄밀히 말해서 자유시장에 의해 초래되었다. 이것이 미국인의 생활에서 자본주의 모순의 원천이다”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약화시키는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에게 자기 수양이 잘 된 장기적인 가치를 요구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쾌락주의와 같은 단기적 가치를 장려하기 때문이다. 브룩스(Brooks, 2016a)는 벨(Bell, 1976)의 이러한 논지를 이용하여 미국의 자본주의는 사람들에게 만연한(rampant) 소비와 명성을 얻고자 하는 문화, 그리고 성공은 노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잠깐 빠르게 반짝하는 매스컴의 관심에 의해 생긴다고 말하는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의 환상에 의해 약화되어왔다고 주장한다.

문화적 모순에 관한 이러한 분석에서 벨은 자본주의 내에서 문화와 경제 사이의 모순에만 초점을 맞춘다. 벨은 자본주의의 분명한 모순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기여했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규율을 강조하는 청교도적인 특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그들은 또한 쾌락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소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벨의 이런 통찰력 있는 분석이 간과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정부(polity)에 관한 분석의 부재다. 벨은 단순하게 정부를 당연시했고,

미국 자본주의에서 정부, 경제, 그리고 문화 간의 복잡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벨은 정부가 시장경제에 간섭하지 않을 때, 자본주의가 가장 잘 작동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가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벨과 대조적으로, 다른 학자들은 국가는 자본주의의 유지에서 중요한 정치적·이념적인 역할을 하며, 자본주의가 문화적 모순에 의해 약화될 것이라는 벨의 예측은 문화적 모순이 “후기 자본주의(late capitalism)”의 출현(Mandel, 1978) 또는 미국의 전 세계의 산업과 군사 지배의 전형을 보여주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Jameson, 1991; Harvey, 1990).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벨의 비정치적인 분석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미국 자본주의의 문화적 성향에서 중요한 변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비정치적인 분석틀/framework은 확실히 후기 사회주의 중국의 문화적 모순을 분석하는 데는 부적절하다. 그 이유는 중국의 공산당-국가는 중국의 경제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II. 후기 사회주의 중국에서 문화적 모순의 생성

미국이 200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자본주의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은 20세기 중반에 사회주의 혁명을 겪었으며, 1978년 문화대혁명(Cultural Revolution)이 끝나고 나서야 자본주의로 가는 도정을 시작했다. 이와 같이 마오쩌둥(毛澤東)주의 시대(1949~1978)의 사회주의 유산이 어떻게 중국의 후기 사회주의 발전을 형성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강 리우(Kang Liu, 2004)에 따르면, 마오쩌둥의 혁명적 사회주의는 냉전시기의 역사적 산물이다. 마오쩌둥주의는 (외국의 어떤 도움에도 의지하지 않고) 중국인들의 집단적이고 자기희생을 통해 강하고 평등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혁명적 이상(revolutionary ideal)을 받아들였다. 평등주의와 집단주의 이념 이외에도, 마오쩌둥주의는 강하고 획일적인 공산당-국가 이념을 함양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고취해나가는 데 있어 문화와 이념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이러한 혁명적인 마오쩌둥주의는 종종 지적 엘리트층의 반대 의견에 대한 잔혹한 강압에 의해, 그리고

노동자들[도시의 무산 노동자 계급(proletariat)과 시골의 소작농을 포함하는]의 폭넓은 동의
를 얻음으로써 중국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 CCP)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힘
(legitimizing force)으로서 효과적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후기 사회주의 중국에서, 혁명가들은 마오쩌둥주의자들이 공산당-국
가에서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숙청할 뿐만 아니라 탈집단화(de-collectivization), 시
장화, 민영화, 그리고 사회주의 복지의 약속으로부터의 후퇴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혁명적 마오쩌둥주의 이념을 해체하고, 그것을 중
산층의 문화적 가치들로 대체할 필요가 있었다(So and Chu, 2013).

중국은 자본주의 혁명(capitalist revolution)이 아닌, 자본주의적 이행(capitalist
transition)을 경험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국가는 여전히 중국의 발전 과정을 주
도했다. 리우(Liu, 2004)와 왕(Wang, 2001)은 어떻게 공산당-국가가 혁명적인 마오
쩌둥주의 이념을 미국 자본주의의 쾌락주의적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업문
화와 같은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소비문화로 바꾸기 위해 어떠한 전략
과 정책을 수립했는지를 검토한다.

먼저 공산당-국가는 수년간 소비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안해
왔다. 예를 들면, 제10차 5개년 계획(The 10th Five Year Plan: 2001-2005)은 그 중심목
표를 “소비문화를 장려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밝혔다. 마찬가지로
주룽지(朱镕基) 총리는 1999~2003년 도시 공무원의 임금 인상이 소비자 수
요를 늘리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을 인정했다(Thornton, 2011). 최근에 특히 자격이
되는 농촌 인구들을 도시민으로 바꾸어놓기 위한 규칙을 제정한 신도시화 계획
(New Urbanization Plan, 2014-2020) 또한 소비의 증가를 그 주요한 이점으로 본다.

이러한 정책 변화와 더불어, 소비문화가 대부분 자본가들에 의해 장려되는
미국과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공산당-국가가 소비문화를 장려하는 데 있어 적극
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왕(Wang, 2001: 39)은 1996년 북경에서의 “이틀 주말 캠페인
(Double Leisure Day Campaign)”을 소개하면서 여가문화의 열기가 전 중국으로
퍼져나간 이후 북경 대중매체의 담론의 변화를 주시했다.

특히, 북경의 지방 공산당-국가는 1996년 박물관 관람, 영화 및 연극 감상,
스포츠, 관광 등과 같은 여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틀 주말행동 프로그램
(Double Leisure Day Action Package)”이란 제목으로 9개월 동안의 장기 캠페인을 시

작했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여가 문화”의 범주를 교육적인 의제로 사용한 첫 번째 사례였다. 이 캠페인의 기저에 깔린 주제는 “근대화되고 문명화된 북경인이 되는 법을 배우자”는 것이었다. 북경 시민들이 근대화되고 세련된 도시민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그들이 취미 혹은 여가시간으로 변화하는 시간의 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측정되었는데, 여기서 여가시간은 소비를 하는 데 있어 야외 활동으로 정의된다. 북경의 공산당-국가가 새로운 시민 소비자(citizen-consumer)의 의미를 구성한 이후, “주말 문화”, “이틀 주말(double leisure day)”, “특별한 주말(big weekend)”, 그리고 “여가 문화 열기(leisure culture fever)”와 같은 담론은 곧 중국사회의 대중매체로 퍼져나갔으며, 이는 북경에서 소매유통, 관광, 음식, 무역, 대중교통과 같은 전통 서비스 산업의 호황으로 이어졌다.

공산당-국가는 근대화되고 세련된 도시민을 열렬한 소비자로서 재해석하는 것 외에도 마오쩌둥주의의 혁명적 사회주의의 “내용”이 아닌, “담론 양식(discursive forms)”을 참조함으로써 소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 리우(Liu, 2004: 79-80)는 “여름궁전의 안락의자(Armchairs of the Summer Palace)”라는 제목의 글을 분석했다. 이 글은 1990년대 판매, 오락, 관광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지어진 해변 휴양지, 난다이허(Nan Daihe)의 건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난다이허를 쓴 저자들에게, 그리고 그 새로운 해변 휴양지를 지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관광 휴양지의 건설은 위대한 상업적인 모험만큼이나 고귀한 정치적인 과업이었다. 우리는 이 글에서 마오쩌둥 시대의 “혁명전쟁(revolutionary wars)”에 필적할 만한 열정으로 물든 장면을 보게 된다.

푸닝(Funing) 현의 당 위원회는 호우(Hou) 부 당비서와 첸(Chen) 현장(군수), 그리고 니에(Nie) 현 관광부서장을 그 건설 사업의 책임자로 지정했다. 그 현 내에서의 호우 부 당비서의 권위와 인기 덕분에 ... 집단적으로 열정적인 투쟁심이 형성되었다. 모든 방해에 맞서서, 그들은 건설 현장에서 단호하게 밤낮으로 계속해서 싸웠다. 그렇다. 그것은 전투였다. 의지와 결단, 비통함, 변화와 속도, 그리고 헌신과 모험, 이 모든 것은 오직 전쟁터에서의 극도로 맹렬한 전투 같은 것이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마오쩌둥 시대의 “집단적인 투쟁심”은 이제 중국의 자본이 자본주의 관리자들(capitalist managers)로 변모된 혁명적인 국가 관료들과 손을 맞

잡고 그 성공을 축하하는 전혀 생소한 현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후기 사회주의 시대의 마오쩌둥주의의 혁명적 사회주의의 역사적인 재전유(re-appropriation)와 대체(displacement)에 의해 자본주의 상업 문화의 확산이 가능해졌다.

공산당-국가는 소비와 상업 문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그 외에도 자본축적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의 전략을 사용하여 (마오쩌둥의 혁명적 사회주의의 이념 위에 세워진) 공산당-국가에 의지하고자 하는 모순을 조정, 타협 또는 대체하고자 했다. 1970년대와 80년대 후반 경제 개혁의 초기 단계에서 마오쩌둥 시대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을 위시한 지도자들의 정책은 정치 이념과 혁명적 유산 문제에 대한 어떠한 공개토론도 모두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개토론을 금지하는 그 자체로는 아직도 살아서 존재하는 듯한 과거의 망령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공산당-국가와 그 이념적 장치(ideological apparatus)가 아직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이러한 공개토론의 금지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러한 금지를 완전히 철폐하지 않은 채,¹ 장쩌민을 비롯해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덩샤오핑 이후의 '제3세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전략을 이념과 문화 무대에서 점진적으로 바꾸어나갔다. 그들은 국가가 후원하는 MTV와 가라오케 콘서트, 텔레비전 드라마, 그리고 쿵푸(kung fu) 소설과 같은 중국 고유의 대중문화가 번성하고 새롭게 소개된 서구의 대중문화와 경쟁하도록 허용하고 장려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산당-국가는 늘어나는 대중의 요구와 이념적 통제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려 했다. 의미를 부여하려는 갈망과 공개토론을 금지한 데서 생겨난 공허함은 대중문화와 오락으로 채워졌다. 일화 하나를 들면, 현재 중국에서는 온라인에 있는 모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지만 홍콩에 기반을 둔 방송국의 뉴스 보도에는 접근할 수 없다.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 전략은 “중국 위

¹ 2016년 초에 중국 신문과 잡지들은 “중국공산당과 사회주의 성(xindang, xinshe)을 붙일 것”(역자주: 공산당과 사회주의의 입장을 밝힐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대해 빈정대는 논평을 했던 『서던 메트로폴리스 데일리(Southern Metropolis Daily)』의 한 편집인은 사임하도록 강요당했다(Wang, 2016). 비슷한 맥락에서 공산당-국가는 이에 비판적인 잡지였던 엔후양춘치유(Yanhuangchunqiu)의 편집팀 전체를 교체할 것을 명령했다. 이 잡지의 경영진은 정부의 그러한 조치에 항의하여 잡지를 폐간하기로 결정했다.

협(China threat)” 혹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놀란 서구 열강들이 내세운 신 봉쇄전략(new containment strategy)과 같은 외국의 침략에 직면해 애국심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의해 달성된다. 때때로 애국심에 대한 이와 같은 요구는 모든 중국인의 공통의 선조에 대한 충효(loyalty and filial piety) 이념과 같은 유교적 가치와 윤리의 회복이 가미된 것이다. 1999년 미국의 중국대사관 폭격사건과 2012년 일본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Diaoyu/Senkaku Islands)의 국유화(nationalization)와 같은 긴급한 국제적 사건들에서 분출된 대중시위에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 외에도,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영역으로 향하게 되었다. 외국제품의 불매운동은 원래 일반 대중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었으나, 중국 정부는 점차 그것의 잠재력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일로는, 남한의 고고도(高高度)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에 대응해 한국의 인기가수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었다(Kai, 2016).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 영역에서의 정치적 쟁점의 우선순위가 이상주의적인 선전(ideological propaganda)에서 더욱 실용적인 목적으로, 특히 일반 대중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2000년대에는 “화합(harmony)”뿐만 아니라 “질서와 안정”과 같은 관념이 강조되었다. 이때는 근로계약법과 “삼농(Three Agriculture)” 정책과 같은 사회적 보호가 시작되었던 시기와 거의 같은 때였기 때문에 혜택 받지 못한 대부분의 중국인은 몇몇 학자가 주장한 최악의 “강패 자본주의(gangster capitalism)”라고 부르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Walker, 2006; Lee, 2007; So, 2007).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정책이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억누르는 것에 실패하고 많은 대형사고가 급격하게 일어나자(So and Chu, 2016),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취한 가장 최근의 전략은 (마오쩌둥주의를 포함하여) 혁명적 과거의 미사여구를 떠올리게 하고, 그것의 권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며, “중국 국가 회복의 꿈(China dream of national rejuvenation)”을 함양하는 것이었다(Zhao, 2016). 위에서 다룬 것과 같이, 중국 국가의 권위주의적 지배를 강화하고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것 외에도 시진핑 체제는 또한 공산당 간부단의 사회주의에 대한 헌신의 회복을 요구함으로써 부패를 찾아내고 깨끗한 정부를 장려하는 비전을 제시한다.

요약하면, 공산당-국가는 마오쩌둥의 혁명적 사회주의의 담론 양식과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소비, 상업 문화, 그리고 자본주의적 프로젝트를 장려한다. 결국, 공산당-국가의 상업문화 장려로 발생하는 모순을 피하기 위해, 중국의 공산당-국가는 자신들이 중요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는 사실을 알리는 실용적인 목표를 위해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고 마오쩌둥의 혁명적 이념을 이용한다.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남는다. 중국사회에서 문화적 모순은 어떻게 나타나며, 위에서 확인한 대응전략들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왔는가?

III. 문화적 모순 현상: 중국사회의 도덕 위기

미국에서는 지나친 개인주의, 소비의 만연, 그리고 쾌락적이고 단기적인 가치와 같은 문제들이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문화적 모순이 정치와 사회에서 규제되었기 때문이다(Bell, 1976; Brooks, 2016b). 벨이 규제(restraints)를 민주적인 정부가 수행하는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라고 보는 반면, 브룩스(Brooks)는 경제적 관점을 균형 잡기 위해 [교회, 공동체 조직, 명예 규칙(honor code)] 같은 도덕적 관점을 장려하는 사회적 제도로 본다.

그러나 중국의 대중매체에서 도덕적 위기에 대해 널리 퍼진 충격적인 담론에서 드러났듯이 중국에서 이러한 문화적 모순은 중국 공산당-국가와 사회에 의해 억제되지 않았다(Ci, 2009; Li, 2015). 예를 들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지의 보도에 따르면, 2004년 부도덕한 상인들이 가짜 유아용 이유식을 만들어 팔아서 안후이(Anhui)성에서 수십 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는 폭로가 중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또한 어떤 상인들은 쌀을 더 신선하게 보이려고 가공 시 파라핀 왁스를, 돼지고기의 살코기 질을 좋게 하기 위해 금지된 화학약품을, 새우와 게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항생제를, 그리고 채소에는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했다. 가장 최근의 먹거리 파동(food scare)은 허베이(Hebei) 성의 오리알이 발암성 염료로 오염된 것이었다. 먹거리 파동은 실험

실의 실험을 통해 가자미를 다룰 때 금지된 항생제를 사용했고, 두부피에서 압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나왔음이 폭로되면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이러한 화학물질과 항생물질은 먹거리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며, 색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이러한 사례들을 사회타락의 조짐으로 진단한다(2006: 5). “요즘에는 많은 중국 본토인들이 그들의 행동이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많은 무고한 목숨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고자] 하며,” 중국이 중국인들의 생활수준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지난 25년간의 경제개혁과 개방 이후 비양심적인 돈을 추구하기 위해 영혼을 잃었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맥락에서, 첸(Chen, 1995)은 『월스트리트 저널(Wallstreet Journal)』에서 후기 사회주의 중국의 도덕적 공백(moral vacuum)에 주목했다. 마오쩌둥 시대의 집합주의 정신과 이타심은 개혁 시대에 사회 경제적 변화의 출현 이후 거의 사라졌다. 중국 자본주의는 “돈을 숭배하고, 극도로 이기적이며, 퇴폐적인 생활방식”과 부 심리(wealth mentality)에 대한 집착을 촉발시켰다. 첸(1995)은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거의 모든 것이 중국으로 들어갔으며, 중국인들은 돈을 위해서는 선과 사회도덕을 기꺼이 무시했다고 논평했다.

2010년대에 중국사회에서 여러 가지 냉혹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도덕적 공백에 대한 이러한 담론은 도덕적 위기에 대한 담론으로 발전했다(Li, 2015; Osnos, 2014). 2011년 유에-유에(Yue-Yue)라는 2살짜리 여자아이가 길에서 트럭에 치여 부상을 당했다. 18명이 그 사고 현장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아이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그 아이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80대의 은퇴한 대학교수가 오토바이에 치여 의식을 잃고 길에 쓰러져 있었으나 그 노교수가 깨어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아무도 도움을 주거나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 19세의 소녀가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강간을 당하는데도 주변에 있던 40명이 넘는 사람 중 누구도 소녀를 도와주지 않은 채 그 광경을 보고만 있었다.

웬(Wen, 2012)은 중국에서 이러한 냉혹한 사건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중국의 국가 언론, 인터넷 포럼, 그리고 중국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논의를 일으켰다. 중국 대중매체는 이러한 사건들이 중국사회의 도

덕적 타락과 도덕적 위기의 외적인 징후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후기 사회주의 중국에서 도덕적 위기의 폭발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IV. 후기 사회주의 중국의 국가 신자유주의와 도덕 위기

차이나스코프 분석 시리즈(Chinascopie Analysis Series)(Chinascopie, 2011; Chinascopie, 2012a; Chinascopie, 2012b)의 연구들은 중국의 도덕적 위기와 관련된 많은 극적인 사건을 보여준다. 이 연구들은 중국의 도덕적 위기의 장본인은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의 문화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중국은 매우 높은 도덕규범을 가진 “고대 문명(ancient civilization)”으로서 5천 년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가졌지만, 이러한 “고대 문명”은 마오쩌둥 시기에 특히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파괴되었다. “중국공산당(CCP)이 중국의 전통문화가 제공해오던 정신적·종교적·도덕적 기반을 파괴한 뒤, 그 기반은 이제 그 누구도 지지하기에는 너무나 손상되어서” 현대 중국사회의 도덕적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Chinascopie, 2012b: 13-14).

차이나스코프의 이러한 설명은 마오쩌둥주의의 사회주의와 문화대혁명을 오늘날 중국사회의 도덕적 위기를 나타내는 장본인이라고 보는 반면, (집단주의와 이타적인 마음과 같은) 사회주의 도덕과 후기 사회주의 중국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게다가 차이나스코프의 분석은 지웨이 츠(Jiwei Ci, 2009)가 설명하려 했던 도덕적 위기의 두 가지 다른 차원 — ① 사회의 구성원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옳음(혹은 정의, right or justice)의 규범, ② 개인 혹은 집단의 목적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삶(good life)의 기준 — 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차이나스코프는 이 중 오직 두 번째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 즉, 중국공산당과 문화대혁명은 전통적인 중국 문화 가치를 근절했기 때문에, 중국의 후기 사회주의 시대에 도덕적 공백(moral vacuum)이 존재하며, 중국 시민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은 도덕규범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중국 시민들이 중국사회의 먹거리 파동, 비양심적인 상인들, 그리고 냉혈한 사건사고들에 대해 대중매체에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후기 사회주의 중국에서 도덕적 위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 번째 차원, 즉 도덕적 위기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 (혹은 정의)와 관련된 위기다. 바꾸어 말하면, 도덕적 위기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공존과 협력에 대해 거의 모두 받아들일 만한 원칙에 순응하는 데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한다. 도덕적 위기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후기 사회주의 중국에서 도덕적 위기는 동시에 정의의 위기(crisis of justice)이자 사회 질서의 위기라는 츠(Ci, 2009)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렇게 더욱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위반되는 규범들은 대부분 도덕적 불일치(moral disagreement)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일상적으로 규범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그 규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이 그 규범에 반대하기 때문에 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왜 많은 중국인이 자신들이 규범으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규범들에 순응하는 것에 실패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흥미롭다.

위의 질문에 대해, 츠(Ci, 2009)는 “호혜주의(reciprocity)”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츠는 사람들이 규범에 순응하는 것은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고 주장한다. 이 상호작용 조건이 진지하게 충족되지 않을 때, 규범에 자진해서 순응하고자 하는 의지에 점진적인 쇠퇴가 일어나며 이는 구성원들에게 더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한 번 이러한 불순응(non-compliance)이 시작되면, 이것을 유지하거나 심지어는 가중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서,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불순응하도록 이끌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도덕적 위기는 기본적으로 호혜주의의 붕괴(breakdown of reciprocity)이며, 또 사회적 공존과 협력에 대한 기초 규범에 순응하기 위해 사회의 다른 구성원 가운데 널리 퍼진 신뢰의 부족을 의미한다.

츠는 철학가로서 도덕적 위기의 다양한 차원과 기본적인 불순응 이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중국의 도덕적 위기를 설명하는 데 기여했다. 그럼에도 츠는 사회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중국의 도덕적 위기를 분석하지 못하며, 따라서 중국의 도덕적 위기와 우리가 국가 신자유주의라고 규

정하는 중국의 사회-경제적 변화 간의 관계를 추적하여 밝혀내지 못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서로 밀접한 차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 번째 차원은 국가가 유도한 신자유주의, 즉 중국 국가의 지나친 시장의 합리성(hyper-market rationality)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과 국가의 정통성과 법 지배의 신빙성을 점차 약화시키는 공산당-국가의 자기 보호(self-preservation) 성향의 문화적 차원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 차원은 시장의 정치-사회적인 규제(regulations)를 다루긴 하지만, 국가 신자유주의와 연관된 문제들을 강조한다.

먼저, 지용 투(Jiong Tu, 2014)는 정치경제적 시각을 이용하여, 신자유주의 시장 시대에 공산당-국가가 복지 제공과 사회보장으로부터 후퇴함으로써 중국인들이 위협, 불안, 불확실에 노출되었음을 지적한다. 후기 사회주의 중국에서 개인의 자기 책임(self-responsibility)은 공동체와 사회연대(social solidarity)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시장, 상업화된 공공기관, 그리고 중국사회는 일반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과 친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타주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만들어주지 못한다.

게다가 시장화(marketization)가 사회 깊숙이 침투되면서 사회 전체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는 시장처럼 도덕도 타협되어간다. 문화와 도덕의 이러한 변화가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혁을 겪은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지만(Brown, 2011), 공산당-국가와 신자유주의의 결합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중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중국 일반 대중 구성원 가운데 집단주의의 이상과 상호 원조의 믿음을 근절하는 것 이외에도, 신자유주의 논리는 국가 관료들의 도덕적 권위(moral authority)에도 침투하여 그들의 도덕적 권위를 약화시켰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논리는 소중한 도덕적 이상(ideals)과 맞지 않는 사회적 행동을 확산시키는 본보기가 되었다. 투(Tu, 2014)는 중국사회의 도덕적 위기는 기본적으로 공산당-국가의 도덕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유교(Confucianism)는 통치자가 특정한 도덕적 행동을 상징하고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일 것을 권고한다. 마오쩌둥 시대에,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권력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들을 생각하고 섬기기 위한 도덕적 권위 또한 상징했다. 그러나 후기 사회주의 중국에서 공산당-국가는 장쩌민이 공산당과 그 간부단으로 하여금 선진화된 생산력, 선진 문화, 그리고 국

민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나타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계속해서 국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도덕체계(moral framework)를 제공할 수 없었다. 비록 중앙공산당-국가가 자신을 중국인들을 섬기기 위해 (공산당은 항상 자신들이 “제일 먼저 쓴맛을 보고 가장 나중에 이익을 취할” 것을 맹세하였다) 중국의 현대화와 도덕성의 선두에 있는 것으로 묘사했으나, 지역의 암울한 현실은 중국인들이 지방정부를 비판하게 만들었다. 공적 담론(public discourse)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인식의 차이를 나타낸다(So, 2007).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중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만족감이 높은 반면,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만족감과 신뢰가 점점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78년 이래 중국 자본주의를 추진하는 동력을 제공한 것은 지방정부 관료들이었다(Whyte, 2009). 앞에서 언급한 북경의 “여가시간” 캠페인과 난다이허 휴양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보여주듯이, 지방정부 관료들은 자신들의 지역의 경제발전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다. 그들은 자본주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하고, 때로는 (노동 규정, 환경, 조세 등에서) 규제를 무시하고 기업가들과 정치적 연줄(guanxi) 네트워크를 형성해간다. 지방정부 관료들의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자본주의 투자자들과의 친밀한 관계, 과소비, 그리고 내연녀들과의 노골적인 성(sex) 생활(Uretsky, 2016; So, 2016)은 종종 지방 관료들로 하여금 부정부패 및 사업과의 유착 혐의를 받게 한다. 지방관료들의 이러한 부패한 이미지는 지방 당국의 신용을 잃게 하는 요인이다.

투(Tu, 2014)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을 들어 지도층의 부정 부패 행위가 대중의 부패한 행동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지방 관료들이 규범을 지키는 것을 회피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느낀다. 일반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적은 수입을 얻는 반면에 그들의 지방 관료들이 많은 액수의 “회색 수입(gray income)”을 얻는 것을 비교할 때, 부당함을 느낀다.

따라서 투(Tu, 2014)는 오늘날 중국사회와 공산당-국가의 정통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지방관료 집단의 부도덕(immorality)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권력의 전형으로서 지방 공산당-국가 관료들은 도덕적 역할에 부응하면서 살지 않으며,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지도 않는다. 그 결과, 공산당-국가가 그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대중에게 도덕률(moral code)을 발표하기 위해 도덕적 수사를 이용할 때, 그것은 대중의 일상의 경험을 벗어난 것이며, 따라서 많은 이들이 공식적인 규례를 따르려 하지 않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인화 추(Yin-Wah Chu)가 쓰촨성(Sichuan) 동쪽의 유에구양(Yueguang) 촌의 소작농들과 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보면 더 잘 나타난다. 유에구양 촌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적용 가능한 중앙정부의 보상제도, 토지 행정법(Land Administration Law)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수용 절차, 그리고 정부에 수용된 마을 농지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마을 사람들은 지방 관료나 (부동산) 개발업자가 자신들의 농지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유에구양 촌은 2005년 이후 급속하게 대규모로 (정부의) 토지 수용을 겪어야 했다.

예를 들어, 이 마을 사람들은 정부의 토지 수용이 자신들과 적절한 협의 없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고 불평했다. 유에구양 촌의 농지는 1무(亩, mu)²당 200~300만 원민비(RMB)에 경매될 수 있는 반면, 1무당 소작농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30만 원민비에 지나지 않는다(2015년 7월 인터뷰). 게다가, 마오쩌둥 시대 집단 토지 소유(collective land ownership)는 소작농들에게 평생 동안 생계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제 그들은 시장이라는 공간에 강제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곳에 남겨지게 되었다. 요약하면, 유에구양 촌에서의 이러한 민족지학적인 발견은 중국의 지방 관료들 사이에서 토지와 관련된 부패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일 뉴스와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관료들에게서 나온 금, 보석, 그리고 현금의 양에 관한 보도를 읽으며, 아직도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부패한 관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국 소작농들(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법과 정의의 지배에 대한 생각은 회의감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고위관료들 사이의 부패와 성추문에 관한 뉴스들과 중국 공산당에 의해 구현되는 자기 이미지 사이의 불일치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위선적으로 보인다는

² 1무(mu)는 약 666.7평방미터를 가리킨다(역자 주).

오스노스(Osnos, 2014, So, 2016에서 재인용)의 견해를 떠올리게 한다.

둘째, 사회주의적 집단주의(socialist collectivism)를 약화시키는 것 이외에도, 국가 관료들과 국민들을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가족의 돈의 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장려하지는 않아도) 허용하는 것뿐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협과 불확실성에 노출시키는 국가 신자유주의는 또한 그러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제 제도(regulatory institutions)를 수립하는 데 실패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로는 후진타오(胡錦濤) 정권하에서 소개된 근로계약법과 시진핑 정권하에서의 부패방지숙청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관료들이 GDP 성장에 사로잡혀 있는 한, 법정은 근로계약법의 위반을 간과하도록 지시받았다(Lee, 2007). 유사하게, 공산당-국가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의 돈을 움켜쥐는 행동들뿐 아니라 지방정부 관료들의 행동을 포괄적이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것이었다. 그때까지 일반 대중의 많은 기대를 받은 시진핑의 부패한 관료들에 대한 숙청은 불가피하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당파적 투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제한되고 부분적인 노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연줄은 대만에서는 중소기업들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수평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제도다. 반면, 후기 사회주의 중국에서 정치적 연줄은 자본가와 정부 관료 간에 수직적으로 구축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국가가 대부분의 (금전적, 그러나 그중에서도 규제) 자원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규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등한 이들 사이의 사회 통제 메커니즘 대신, 후기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정치적 연줄(guanxi) 제도는 권력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장치로 변했다. 이미 규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규칙 집행자(rule enforcers)의 청렴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요컨대, 후기 사회주의 중국은 (제도 내에서) 대중의 신뢰가 결핍된 상황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공산당-국가가 대부분의 자원을 독점하는 국가 신자유주의 또한 유교 윤리 위에 세워진 인간관계에서의 신뢰가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V. 결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앙 공산당-국가는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행동들의 원인을 신자유주의 정책의 구조적 모순보다는 개별 관료들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러한 책임 회피는 이타적인 행동을 좌절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공산당 국가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서 후퇴하는 것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른다. 또한 이는 노동자들과 소작농들의 사회 갈등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록 후기 사회주의 중국에서 시위가 폭발적으로 분출했으나, 중앙 공산당-국가는 중국인들로부터 계속해서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Whyte, 2010). 시위자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자신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중앙 공산당-국가는 제외하고, 오직 지방 관료들 탓으로만 돌린다. 실제로 시위자들은 종종 지방 관료들의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 공산당-국가의 도움을 구하기도 한다. 비록 이러한 책임의 회피는 오늘날 중국 공산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So and Chu, 2016), 이러한 단기적인 정치적 안정성은 중국사회에서 장기적인 정치적 정당성과 도덕적 위기를 희생하면서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투(Tu, 2014)는 후기 사회주의 중국에서 효율적인 도덕적 규제의 부족은 중국인들의 일상 생활이 영리(profit-making), 쾌락적 가치, 억제되지 않는 욕구와 같은 무질서한 결과들에 쉽게 노출됨을 의미한다고 결론 내렸다. 중국의 국가 관료들은 지방에서 문화적 모순과 도덕적 양면성(moral ambivalence)을 낳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에 제대로 맞서지는 않았다. 따라서 공산당-국가는 중국사회에서 도덕적 위기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국가 신자유주의의 상업화된 문화와 문화적 모순에 주위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Bell, Daniel. 197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 Brooks, David. 2016a. "Revolt of the Masses." *The New York Times*, June 28, 2016.
- Brooks, David. 2016b. "The Power of Altruism." *The New York Times*, June 8, 2016.
- Brown, Wendy. 2011. "Neoliberalized knowledge." *History of the Present*, 1 (#1), 113-129.
- Chen, Cathy. 1995. "Moral Vacuum: China's Rush to Get Rich Erodes Traditional Values." *The Wall Street Journal*, May 3, 1995: 1.
- Chinascop. 2011. "The Moral Crisis in China. Part I. Seven Areas That Showcase China's Moral Crisis." *Chinascop Analysis Series*. Number 55, 6-15.
- Chinascop. 2012a. "The Moral Crisis in China Part II – Traditional Chinese Culture." *Chinascop Analysis Series* 56, 13-18.
- Chinascop. 2012b. "The moral crisis in China: Part III - How the communist party destroyed the Chinese spirit." *Chinascop Analysis Series*. Number 58, 6-14. <http://connection.ebscohost.com/c/articles/78399302/moral-crisis-china-part-iii-how-communist-party-destroyed-chinese-spirit>
- Ci Jiwei. 2009. "The Moral Crisis in Post-Mao China: Prolegomenon to a Philosophical Analysis." *Diogenes* 221, 19-25.
- Harvey, David. 1990. *The Conditions of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 Jameson, Fredric. 1991.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Kai, Jin. 2016. "Time for China to Rethink South Korea Relations?" *The Diplomat* (9 August), online available: <http://thediplomat.com/2016/08/time-for-china-to-rethink-south-korea-relations/>, accessed 15 August 2016.
- Lee, Ching-kwan. 2007. *Against the Law: Labor Protests in China's Rustbelt and Sunbel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i Cheng. 2015. "Introduction: Bringing ethics back into Chinese discourse." In He Huaihong. *Social Ethics in a Changing China: Moral Decay or Ethical*

- Awakening?* by New York: Brooking Institution Press.
- Liu Kang. 2004. *Globalization and Cultural Trends in Chin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Mandel, Ernest. 1978. *Late Capitalism*. London: Verso.
- McNally, Christopher. 2011. "China's Changing Guanxi Capitalism: Private Entrepreneurs between Leninist Control and Relentless Accumulation." *Business and Politics* 13(2), 1-29.
- Osnos, Evan. 2014. *Age of Ambition: Chasing Fortune, Truth, and Faith in the New China*.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SCMP (South China Morning Post). 2006. "Tainted Food a Symptom of Moral Decay Eating at Heart of the Country." *South China Morning Post*. December 4, 2006: 5.
- So, Alvin Y. 2016. "Review Essay: Beneath the Miracle: Corruption, Sex, and Truth in post-Mao China." *Critical Asian Studies* 48(#4), 597-604.
- So, Alvin Y. 2007. "Peasant Conflict and the Local Predatory State in the Chinese Countryside."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4(3-4), 560-581.
- So, Alvin Y and Yin-Wah Chu. 2016. *The Global Rise of China*. Cambridge: Polity Press.
- So, Alvin Y and Yin-Wah Chu. 2015. "State Neoliberalism: The Chinese Road to Capit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per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pitalism and Capitalisms in Asia: Origin, Commonality and Diversity," organiz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and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ctober 22-23, 2015.
- So, Alvin Y and Yin-Wah Chu. 2013. "The Transition from Neoliberalism to State Neoliberalism in China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In Chang Kyung-Sup, Kim Se-Kyun, and Ben Fine ed. *Developmental Politics in the Neoliberal Era and Beyond: Critical Issues and Comparative Cases*. UK: Palgrave.
- Thornton, Patricia M. 2011. "What is to be Undone: The Making of the Middle Class in China." In Karin M. Ekström and Kay Glans ed. *Beyond the Consumption Bubble*. New York: Routledge.
- Tu Jiong. 2014. "On the Moral Void in Contemporary China." *King Review* May 22,

- Available at <http://kingsreview.co.uk/magazine/blog/2014/05/22/on-the-moral-void-in-contemporary-china/> Access on July 28, 2016.
- Uretsky, Elanah. 2016. *Occupational Hazard: Sex, Business, and HIV in Post-Mao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Walker, Kathy Le Mons. 2006. "‘Gangster Capitalism’ and peasant protest in China: the last twenty years."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3(1), 1-33.
- Wang Jing. 2001. "The State Question in Chinese Popular Studies." *Inter-Asia Cultural Studies* 2 (#1), 35-53.
- Wang, Xianzhou. 2016. "An Editor of Southern Metropolis Daily Resigned: ‘cannot adopt your last name.’" *New York Times* (30 March), online available: <http://cn.nytimes.com/china/20160330/c30chinaresign/>
- Wen Dao. 2012. *China Moral Crises: Volume 1* (in Chinese).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 Whyte, Martin King. 2009. "Paradoxes of China’s Economic Boom."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 371-392.
- Whyte, Martin King. 2010. *The Myth of Social Volcano: Perceptions of Social Inequality and Distributive Justice in Contemporar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Xiao Zhonghua. 2015. "What’s the Murderous Intention Behind “Don’t Let Li Ka-Shing Run Away?”" *China Change* Sept 19. Available on the web: <http://chinachange.org/author/yaxuecao/> Access on Sept 20, 2015.
- Zhao Suisheng. 2016. "Xi Jinping’s Maoist Revival." *Journal of Democracy* 27 (#3), 83-97.

Abstract

The Cultural Contradiction of State Neoliberalism in China

Alvin Y. So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in-Wah Chu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state neoliberalism in China. First, it discusses the concept of cultural contradiction as formulated by Daniel Bell (1976), and then it examines the making of cultural contradiction in post-socialist China since 1978. After that, it studies the linkages between cultural contradiction and the moral crisis in the Chinese society. In the end, it argues that moral crisis in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is a product of the cultural contradiction of state neoliberalism.

Keywords | Cultural contradiction, neoliberalism, market reforms, China, communist party-state, capital accumulation